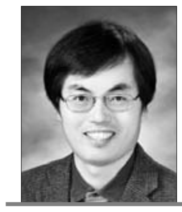
투데이 칼럼

‘테스 형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왜 이래’



홍 성 출
전북대학교 교수

아메바나 짚신벌레와 같은 단세포 생명체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세계를 인식한다.

물론 사람과 같은 고등 생명체도 예외는 아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으로 각인된 자기중심적 사고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독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동서를 막론하고 철학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어떻게 자기중심성을 성찰하여 객관적인 시각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인류에게 철학이라는 귀중한 학문을 선물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사람들에게 자기중심적 사고의 한계를 자각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아득한 하늘 너머에서 소크라테스가 오늘 전북특별자치도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는 깊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충실히 이행하느라 오밤중에까지 도청 공무원들을 비상 동원 시켰던 것도 모자라, 도지사 경선에서 돈봉투를 돌리는 장면이 떡하니 CCTV에 찍혀 버렸어도, 김관영 지사는 꿋꿋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젊은 청년의 음주운전을 염려해서 대리 운전비 좀 준 것 가지고 뭘 그러냐고 항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당 시절 발가락이 숭숭 나올 정도로 다 해어진 신발을 신고 다니는 늙은 어르신의 발가락이 애처로워 고무신 한 켤레 사준 것이 뭐가 문제이었냐고 필자는 묻고 싶다.

그동안 김관영 지사는 대마초를 헴프라는 말로 둔갑시켜 조 단위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도 모자라, 중앙정부에서 전북 발전을 위해 쓰라는 R&D 예산 40억원을 특정인에게 몰아줘 이미 개발되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연구를 전북이 아닌 경기의 아주대에서 쓰도록 한 괴이한 행정 등을 포함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책을 남발했다.

어찌 보면 이번 돈봉투 사건이 CCTV에 찍히게 된 것은 낙후된 전북을 보살핀 하늘의 뜻이 아니었을까 하고 필자는 생각한다.

안호영 의원은 또 어떠한가? 전주-완주 통합의 찬성 반대를 왔다 갔다 하다가, 도지사 선거도 출마와 불출마를 왔다 갔다, 도대체 한다 안 한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듣는 사람이 다 헷갈릴 정도였다.

도지사 출마를 한다 안 한다를 반복한 후보가 경선에서 표를 잘 얻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것이다.

그래서 도지사 경선에서 안호영 후보의 낙선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호영 의원은 이원택 후보의 식사비 대납이라는 거짓의 바벨탑을 하늘 높이 쌓아 올리면서, 경선 불복을 선언하면서 재경선을 요구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한 도의원 주관 청년간담회에서, 그 도의원이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를 대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원택 의원은 그 간담회에서 자신 몫의 식사비는 자신이 냈다고 밝혔고, 해당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는 이원택 의원이 현금으로 이원택 의원의 본인 몫의 식사비를 결제하는 것을 보았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2명이 이원택 의원이 식사비를 결제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식사비 대납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다수는 다른데 정신이 팔리거나 혹은 딴생각 때문에, 사건 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 두 명이 명확하게 사건 순간을 목격했으면 그 목격자의 진술이 인정되는 것이 현대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채증법칙이다. 즉 목격자의 진술에 대한 법률적 채증법칙은 사건 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의 존재보다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로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채증법칙의 기본이다.

정확한 목격자가 한 명만 존재해도 목격자 진술의 채증법칙이 성립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다수가 이원택 의원이 자신 몫의 식사비 결제를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은 논쟁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목격자 진술의 채증법칙을 약간만 이해하면,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이 얼마나 얼토당토않은 억지 주장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호영 의원은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이라는 무고를 주장하면서 국회 앞마당에서 단식 쇼 퍼포먼스로 도지사 경선 결과를 불복하고 있다.

나아가 김관영 지사는 만사를 제치고 안호영 의원의 단식 장소에 방문하여,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다. 불썽사나운 꼴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어울리는 경우가 어디 있나 싶다.

자신의 도지사 재선을 위해서는 돈봉투도 과감하게 돌리는 용기, 경선에서 낙선하면 재경선을 요구하면서 과감하게 단식 투쟁까지 해버리는 그 강렬한 결기에 필자는 씁쓸한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김관영 지사와 안호영 의원은 도지사를 향한 그 강렬한 욕망의 0.0001%라도 전북의 발전을 위해 고민해 본 적 있는지 묻고 싶다.

만약 소크라테스가 환생하여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하면, 소크라테스는 두 사람에게 도지사 경선에서 실패한 이유를 주변에서 찾지 말고,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조언할 것이 분명하다.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사 설

장준철 사진전 ‘도시의 초상’

장준철 사진전 ‘도시의 초상-생성과 소멸의 경계’가 4월 7일부터 12일까지 전주 교동미술관 제2관에서 열렸다.

작가에게 있어 크레인은 단순 건설장비가 아닌 푸른, 혹은 회색빛 캔버스를 가로지르는 기하학적 선이자 구조적 질서, 공간을 구획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조형물이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가로지르는 크레인이라는 소재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생되는 현대도시의 속성과 함께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미학을 프레임에 담은 것이다.

전시된 사진들은 ‘건설’이라는 기능적 프레임을 벗겨내고, 크레인을 도시라는 거대한 무대 위의 단독 주연으로 격상시켰다. 크레인이 단순한 기계가 아닌 현대인의 초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빌딩 숲 위로 높게 솟은 크레인의 팔은 가장 높은 곳에서 도시를 조망하지만, 결코 지면에 닿지 못한다. 현대인의 군중 속 고독, 소외된 자화상을 투영한 모습이다.

곧게 내려 뻗은 직선들, 그리고 격자무늬의 복잡한 선들은 도시가 멈추지 않고 증식하고 있음을 알리는 박동과도 같다.

장준철 작가는 “크레인은 하늘에 선을 그어 가는 하나의 거대한 필기구다. 파란 하늘이라는 무한한 여백 위에 강철의 선을 긋고, 도르래의 점을 찍으며, 기하학적인 면을 구성한다. 육중한 강철 덩어리가 중력을 거스르며 매달려 있는 모습에서 현대 문명이 지닌 ‘불안한 균형’과 ‘수직을 향한 끊임없는 욕망’을 읽는다.”고 했다.

작가는 사진연구소1839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제8회 ‘목.이빛 전 - 붓 끝에 마음을 담다’

제8회 ‘목.이빛 전(展) - 붓 끝에 마음을 담다’가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열렸다.

참여자는 ‘목.이빛’ 회장 최정화 작가를 비롯 모두 23명이다. 이번 전시는 전통 수묵의 정신 위에 각자의 시선과 감성을 담은 작품들로 수묵의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지도교수의 따뜻하고 삼세한 지도 아래 회원들이 오랜 시간 정성과 열정을 기울여 완성한 작품들이다. 한 획 한 획 속에는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스며 있다.

수묵화는 단순히 먹과 붓으로 그리는 그림이 아니다. 마음과 시간의 흔적을 담아내는 예술이다. 예술의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깊어지는 길이다. 먹이 번지듯 천천히 스며들어 결국 자신만의 세계를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8회째 맞는 이번 전시는 아름다운 결실이라 믿는다.

한국화가 이목 홍성녀 지도교수는 “앞으로도 붓끝에서 흐르는 사유와 감성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서로의 작품을 통해 배우며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목.이빛’ 회원들의 앞날에 깊은 예술적 성장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한편 ‘목.이빛전(展)’은 그동안 작은 그림전을 비롯 ‘기획초대전’, ‘열정, 물오르다’, ‘수묵의 조우(遭遇)’, ‘선(線)의 놀이’ 등을 주제로 전시회를 가졌다.

독자제언

이륜차 안전모 착용은 필수

봄철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이륜차의 운행도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륜차의 운행을 하면서 덥다거나, 짧은 거리를 간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이로 인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5년 기준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9만2천8건 이중 사망자는 2,221면이다. 이는 사고 100건당 사망률 2.4명으로 다른 차종에 비해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륜차 교통사고 중 특히 안전모의 유무는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이륜차의 안전모는 차량의 안전띠와 에어백 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머리 손상으로 인해 중상을 입을 확률이 더 커진다.

그럼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안전모 미착용 운행을 하거나, 안전모를 착용을 하더라고 턱 끈을 잘 조이지 않은 채로 운전하는 경우, 규격에 맞지 않은 안전모를 쓰고 운행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이륜차 운전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배달대행 업체 등 고용주도 종업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모 착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하며 자신의 생명과 소중한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안전모을 올바르게 착용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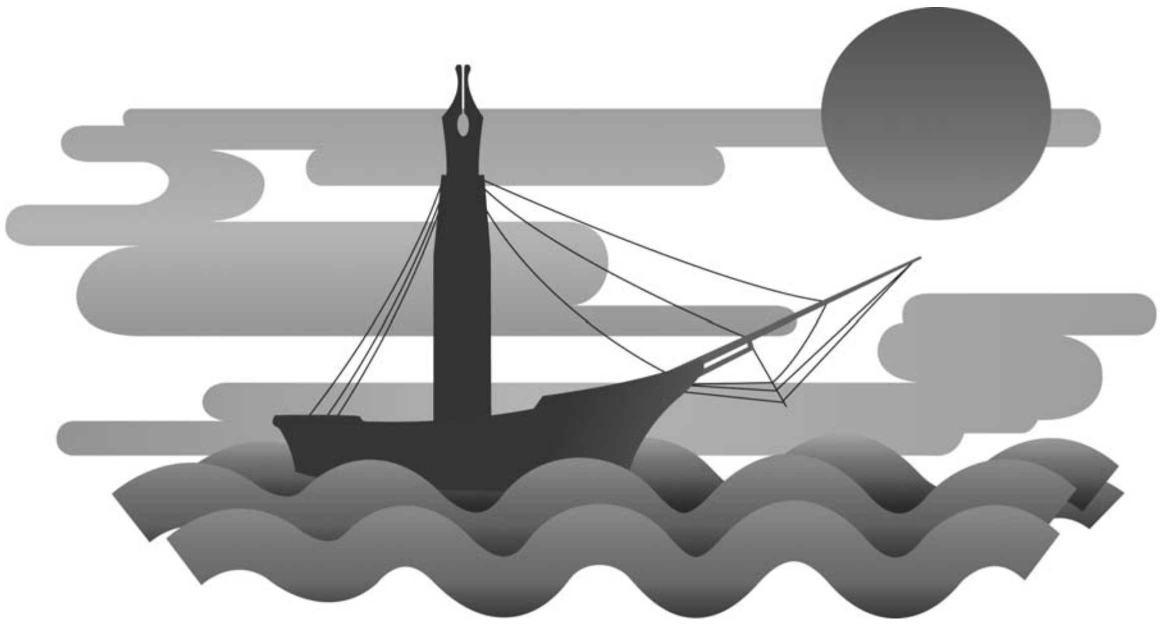
이정우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경감

사내 · 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